

# 인권 신문

발행인 : 이성경



## 사례1

이란의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올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사건으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거세졌고, '여성 인권과 생명 보장, 히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향한 목소리로 확대됐다. 특히 그녀의 사망 40일(10월 26일)을 맞아 반정부 시위로 더 격화됐다. 통상 이란인들은 이슬람 문화에 근거해 고인의 영혼이 사망 40일째 되는 날 잠시 돌아온다고 믿고 추모 행사를 연다. 이날 사케즈 교외에 위치한 아미니 묘에 1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정부를 비판했으며, 영국·미국·프랑스 등 전 세계 150개 나라에서 뜻을 같이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 휴먼 라이츠는 지금까지 적어도 250명이 시위와 관련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 사례2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인 1981년부터 여성의 프로축구 경기 관람을 금지해왔다.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슬람의 율법이 적용되고, 남성 팬들의 외설적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사실상 여성에게는 차별적인 관습이었다. 이후 여성 차별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41년 만인 지난 8월 여성 관중의 입장을 허용했다. 하지만 원하는 좌석을 고르지 못하고 여성 전용 구역에 모여 앉아 관람해야 한다. 탈레반 정권에서 여성들은 기본적인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여자 어린이들은 8세 이후에는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며, 16세 미만 소녀들의 결혼도 허용됐다. 이 나라에서는 혼인의 80%가 강제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은 바깥에 나갈 때는 남자 친척과 동행해야 하며, 택시나 버스도 혼자 이용할 수 없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 아르다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아르다 어머니  
저는 중산초등학교를 다니는 6학년 이성경입니다.  
전통인 할례가 빨리 바뀔면 좋겠네요.

## 국제연합 UN

문제의 현장속에 가장 먼저 달려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바로 국제연합이다.